

엄마의 손길로 피어난 옛 시절 그리움

류미숙 작가 초대전...21일까지 양림미술관

일상 속 식재료로 한가득 차려낸 '엄마의 밥상'

고봉밥 위 뿌려지는 김조각, 노릇노릇 익어가는 계란 후라이, 도마 위 올려져 있는 등푸른 생선. 우리 생활 속 쉽게 볼 수 있는 식재료들이 눈에 띈다.

그림 안에는 꼭 누군가의 손이 등장한다. 밥그릇을 소중히 들고 있거나 사과를 주고받기도 하며, 김을 찢어주거나 달걀 요리를 하는 모습이다.

엄마의 밥상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류미숙 작가의 초대전 '엄마의 밥상'이 오는 21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미술관 1층에서 지하 1층까지 빼곡히 채워진 30여점의 그림 속에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물씬 담겨있다.

계란과 고등어, 가지 등 다양한 식재료 가 요리로 완성되지 않은, 손질 전 상태 그대로 담겨 있다. 잘라서 튀겨 먹거나 찌거나 국으로 끓여 먹는 등 사람마다 먹는 방법이 다르기에 각자의 상상에 맡긴다는 게 작가의 이야기다.

전시장을 둘러보니 식재료 중에서도 유독 달걀을 소재로 한 그림이 곳곳에서 보인다.

광주 포충사 근처에서 50년간 백숙집을 하였던 작가의 어머니와 그 옛날의 추억에는 항상 닭과 달걀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달걀은 가장 기본적인 반찬이자 부화하는 생명력을 나타

내는 상징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림마다 알록달록 화려한 손톱색도 눈길을 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손은 항상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항상 뭘가 들려있거나 문은 주름진 손이었죠. 젊은 시절 하얗고 고왔을 어머니의 손이 어느새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거예요. 엄마가 느꼈을 현실과의 갈등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곳에서라도 해보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화려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명 이상의 손이 등장하는 그림도 만나볼 수 있다. 음식을 만들어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손도 함께 표현돼 있다. 손의 주인은 엄마일 수도 있고, 작가가거나 다른 누군가의 것이기도 하다. 항상 엄마에게 받기만 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서로 주고 받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다는 것.

이처럼 작가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손수 해 주시던 계란 후라이, 고등어 조림, 보리밥 위에 얹은 열무김치 같은 일상 속 음식을 그려내 어린 날의 추억과 그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엄마의 세월을 그림 속에 많이 표현해보려 했어요. 이 재료로 어떻게 요리를 할까, 어떤 음식을 만들어볼까 부엌에서 항상 식재료와 실랑이만 해오셨으



양림미술관 '엄마의 밥상' 전시회에서 작품 소개를 하는 류미숙 작가. (양림미술관 제공)

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술하고도 비슷하다 생각해요. 똑같은 나물을 무쳐도 엄마 손길이 들어가거나 아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예술을 버무린다고 할까요."

이밖에도 전시장에서는 작가가 어린 시절 식당 앞에서 자라던 감나무 열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가 담긴 주전자, 음식의 소중함을 나타낸 밥공기 위의 보석 세레 등 가지각색의 이야기

들을 만나볼 수 있다.

"삶의 원동력을 책임지는 음식의 소중함,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캔버스에 붓질하고 재료를 얹어내며 맛과 색을 버무려 봤어요. 어머니와 하고 싶었지만 못해본 것, 마음 속 여행을 화폭에 한가득 담아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 분들이 각자의 옛 시절을 회상해보기도 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명진 기자

무등산, '사계를 담다'

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 그룹전...광주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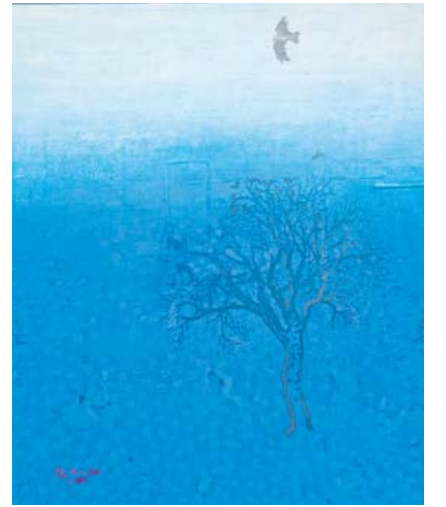
지역 작가들의 개성 있고 다채로운 무등산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오는 9월11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그룹전 '무등산 사계를 문화예술로 담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전남지회는 한국 미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조성, 미술의 발전을 꾀하고 미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창립된 미술단체다. 이들은 매년 정기전과 타 지역 간 활발한 교류전을 통해 지역 화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그룹전에서는 '무등산의 사계'를 중심으로 중견·원로작가 등 54명이 참여해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저마다의 개성과 세계관을 표현한 작품을 구성해 일상 속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다.

장복수 광주전남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 간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미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며 작업 활동에



장복수 작 '응시'

매진한 회원들의 작품을 통해 서로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개막식은 16일 오후 5시 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두드림 난타, 판소리 '춘향가' 등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무등산 그리기 퍼포먼스가 전시실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명진 기자

'뉴미디어에서 NFT까지'

G.MAP 아카데미 강좌...18일부터 총 9회 진행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 G.MAP은 미디어아트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강좌 '뉴미디어에서 NFT까지'를 운영한다.

시의성 높은 미디어아트 주제 강연 진행을 통해 시민들이 미술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마련한 것으로 국내외 내로라 하는 미디어아트 전문가들이 강의한다.

강사는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판장,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 심해련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주경 린 퓨즈아트프로젝트 디렉터, 김성룡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양정하 이지위드 대표, 강진교 한국메타버스연구원 광주지회장, 류재한 전남대 불어불문과 교수 총 9인이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으로 인한 문화예술 콘텐츠 변화 및 진행형의 미래예술 진단을 주요 내용으로 강연한다. 강좌는 오는 18일부터 10월27일까지이며, 매주 목요일 총 9회 운영한다.

수강생 모집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전체 9강 강좌 수강접수는 전화접수만 가능하고, 매회 개별 강좌 수강접수는 매주 강좌가 시작되기 1주 전부터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전송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과학과 예술의 융합은 예술계뿐만이 아닌 전 사회문화의 시대적 흐름이다"며 "전문 강좌를 통해 뉴미디어 아트의 현주소를 비롯한 기술기반의 예술을 진단함으로써 보다 반성적 시각에서 현대 미술문화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미디어월서 미리 만나는 '반디산책'

ACC, 31일까지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展 프리뷰

인류세,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를 일컫는다.

기후 위기와 생태계 위협 등 극한의 상황에 처한 현대인, 인류세를 사는 지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전시 프리뷰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31일까지 ACC 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미디어월)에서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프리뷰를 선보인다.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국내외 영상 작품 8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1일 개막하는 2022 ACC 미디어파사드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의 맛보기 프로그램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는 인류세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조망한다.



성실화랑 작 '멸종위기동물 그래픽 아카이브: 인트로'

1부 '기억하기'에 참여한 성실화랑의 '멸종위기동물 그래픽 아카이브: 인트로'는 동물 초상 기록화 기풍 중 하나다. 100여 종의 동물 초상화를 세계자연보

호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과 함께 구성했다.

2부 '실천하기'에 동참한 찰스 린 이 용은 철거된 작가의 고향 마을 마타이

칸을 배경으로 개발의 그림자를 역설적으로 윤희하게 그려냈다. 정해정의 '반의 반의 세계'는 스티로폼 입자,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에 관한 이야기다. 에이에이비비(AABB)는 관람객이 온·오프라인 세계의 버려지는 쓰레기로 바벨탑을 쌓는 관객 참여형 웹 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3부 '준비하기'의 김을지로 작품 '고사리 걸음'은 인간의 신체 움직임과 결합한 새로운 가상의 존재를 배양하는 미래 지향적인 실험과 관찰을 담았다. 레이레이의 '우주 목화'는 우주에서 목화씨를 심고 음악과 사랑으로 키워 목화씨가 구름과 솜사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본 전시 개막 이후에는 미디어월, 하늘마당, 어린이문화원 앞 광장 등에서 무료로 작품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방치된 묘지 70%(추정)

매장 → 매장
매장 → 봉안
매장 → 수목장

· 오랜 경험과 노하우!
· 탁월한 기술력과 정직한 가격!
· 광주·전남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이장고민 해결!

묘지이장/관리 전문 업체

"날짜 택일에서 화장장 예약, 안치까지, 정성을 다하여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

여름철 비수기 특별할인!

광주 묘업

☎ 010-8674-1037